

#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가 등교거부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매개변인으로

The Influenc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have  
on the School Refusal Tendency: Focusing on the Mediator Variables -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Groups and Teachers

이경호\*, 송미옥\*\*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Kyung-Ho Lee(child629@hanmail.net)\*, Mi-Ok Song(smo314@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G시의 남, 여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546명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등교거부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문제와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 요인, 교우관계변인 중 신뢰감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요인,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 요인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행동문제는 등교거부성과 부모관계에 매개효과 없이 각각 매우 높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는 등교거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는 등교거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관계는 등교거부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등교거부성 | 정서·행동문제 | 교사관계 | 교우관계 | 부모관계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tha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groups and teachers have on school refusal tendency and their routes targeting for 546 students of the 1st and 2nd grades in the boys' and girls' middle schools in G city and to conduct a path analysis by using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and LISREL program.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significant correlation is shown in the all relationships, excluding the external problems ou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ocial support factor out of teachers-related variables, negative support factor out of parents-related variables. Seco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have highly direct influence on school refusal tendency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without any mediator effect and has indirect influence on relationships with peer groups and teachers without ha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direct influence. Also, relationship with peer group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school refusal tendency without ha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direct influence, teachers relationship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 on school refusal tendency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has indirect influence on school refusal tendency through relationship with peer groups and teachers relationship without ha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

■ keyword : | School Refusal Tendency |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 Relationships with Teachers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성취 압력과 경쟁 속에서 우울, 자살, 학교폭력, 게임 중독, 등교거부 등 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교육부[1]에서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19,962명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살생각 등 위험수준이 높아 우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학생은 46,104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중학생은 11%, 고등학생은 9%, 초등학생은 3.4%로, 사춘기 시기인 중학생 관심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 발달 과정 중 생물학적, 신체적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는 다른 학령기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3]. 그렇기 때문에 정서·행동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중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성공의 경험 보다는 학업성취에 대한 경쟁적 학교 분위기 속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 등의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학교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중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의 형태는 수업시간에 일으키는 작고 사소한 문제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학교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학교부적응의 한 형태로 등교거부가 나타날 수 있다.

등교거부는 무단결석을 포함하여 학교에 출석을 하면서도 수동적인 수업태도를 보이고, 종종 수업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4].

우리나라의 최근 공식적인 학업 중단율은 2010년

0.86%, 2011년 1.21%, 2012년 1.01%로 1%전후 수준이다 [1].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학업 중단비율은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계산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2013년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8만 명으로 전체 학령기 청소년의 4%정도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낮은 학력에 머무르며 비행에 노출되는 등 건강한 사회인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26조 35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니 청소년의 학업 중단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5]. 더욱이 일단 학업 중단이 일어나면 정상적 생활이나 학교로의 복교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입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교거부의 원인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며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중단의 주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유학, 어학연수, 개인 심리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6]. 따라서 청소년들의 등교거부의 원인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등교거부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살핀 연구와 등교거부행동을 하나의 임상적 현상으로 보고 정의와 진단,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등교거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제한적이고, 국내에서 등교거부행동을 유지시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개입에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학생들의 등교거부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2012년 상담경향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상담 요청 고민들은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과 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정보제공, 활동, 기타의 13가지로 분류해 그 중 1만 1백 6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우울, 위축, 불안, 충동(분노)조절문제, 자살, 자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이 전체의 약 2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24.9%), 가족문제(14.2%)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담요청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호소영역별로는 초등학생은 가족문제, 중학생은 대인관계, 고등학생은 정신건강에 대한 것이 많았다.

청소년의 이러한 학교부적응, 그 중의 등교거부 문제에 관하여 Kearney와 Wendy[7]는 등교거부학생의 정서·행동적 특성에 있어서 불안, 우울 등의 내면화문제 특성이 등교거부성을 보이는 많은 청소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외현화문제 특성으로는 언어 및 신체적 공격성, 불복종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등교거부성 청소년이 내면화 행동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만, 외현화 행동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박현숙[8]은 등교거부성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신경증적인 증상을 많이 갖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등교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가운데 외적 변인들(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관계)에 관하여, Kearney와 Wendy[7]는 등교거부 청소년들의 가족관계가 등교거부의 필수적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등교거부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매우 갈등적이고 불안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우울하고 허탈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허무감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학교 가기 싫어지게 된다[9].

교우관계도 등교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데, 한영희[10]의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불만 보다 친구관계에 대한 문제가 등교거부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영배[11]는 등교거부학생들은 교우관계에서 비사교적이며 내향적인 경향성이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등교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상담 경험성에서 정서행동문제와 대인관계 영역이 상담의 주요 영역임을 감안하여 중학생 등교거부성에 정서행동문제

와 대인관계 영역 중 교사, 부모, 교우관계 변수들 간의 직, 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하여 최근 늘어가는 등교거부 문제에 대해 중학생의 등교거부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적 차원의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교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등교거부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하였다.

- 1)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등교거부성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2)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등교거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경로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시 5개 구(區) 중학교 각각 1개교씩을 편의표집한 후 표집된 중학교 1, 2, 3학년에서 각각 임의표집하여 약 570명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562부(98.6%)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자료로 부적절한 설문지(예: 이중 응답, 특정 반응으로의 편향된 응답, 누락된 응답 등이 있는 경우) 16부를 제외한 546부(95.8%)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에는 기초사항 질문지, 내면화문제/외현화문제 측정도구, 등교거부성 평가척도, 부모관계 측정도구, 교사관계 측정도구,

교우관계 측정도구가 포함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교거부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등교거부성 측정도구는 Keamey[4]가 제작하고 한영희[10]가 번역한 등교거부평가척도(School Refusal Assessment Scale-Revised-Children: SRAS-R-C)이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의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영희[10]가 문항의 적절성과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여 살펴본 결과 최종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세 이상 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등교거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등교거부성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1이며, 하위요인별로는 '학교에서의 친구관계 문제' .76, '학교 밖 활동에서의 관심' .74, '학교에 대한 부정적 정서' .87, '학교에 대한 불만' .85이었다. 본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신뢰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등교거부성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

요 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학교에서의 친구관계	2,5,8,9,11,16	6	.76
학교 밖 활동에의 관심	4,6,12	3	.74
학교에 대한 부정적 정서	1,3,7,10	4	.87
학교에 대한 불만	13,14,15	3	.85
전 체		16	.81

2)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는 Achenbach[12]가 개발한 미국의 Youth Self Report(YSR)

를 오경자 등[13]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이다. K-YSR은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K-YSR의 하위척도 가운데 내재화문제 척도와 외현화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은 위축 7문항, 신체증상 10문항, 우울/불안 16문항으로 총 33문항이며,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51번 문항은 위축척도와 우울/불안척도 공통으로 포함되어 합산시 한 번 빼주어서 산출하였다.

K-YSR의 각 문항은 학생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는 총점의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내면화문제 .76와 외현화문제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3) 부모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관계 측정도구는 Hudson[14]가 제작하고 김용석, 박명숙[15]이 번역한 「Child's Attitude Toward Parent: CATP」 부모관계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결과는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표 2.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구성내용

척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내재화문제 척도	위축	20, 30, 33, 37, 50, 51*, 54,	7	.72
	신체증상	24, 26, 29(1-8)	10	.75
	우울/불안	3, 4, 6, 13, 14, 15, 16, 17, 22, 23, 25, 34, 42, 44, 51*, 55	16	.81
	전 체		32	.76
외현화문제 척도	비행	11, 19, 21, 28, 31, 35, 38, 39, 43, 49, 53,	11	.79
	공격성	1, 2, 5, 7, 8, 9, 10, 12, 18, 27, 32, 36, 40, 41, 45, 46, 47, 48, 52	19	.88
	전 체		30	.84

\*표시된 문항 51은 위축척도와 우울/불안척도에 공통으로 포함되므로 합산 시 한 번 빼주어서 산출함.

의 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6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관계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관계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

요 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긍정적지지	6,7,8,9,10,11	6	.87
부정적지지	1,2,3,4,5	5	.85
전 체		11	.86

#### 4) 교사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관계 측정도구는 Dubow와 Ullman[16]이 제작한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중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과 이영재[17]와 조금석[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교사와의 관계 문항 5문항을 김영미[19]가 총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교사관계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결과는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보며, 4, 5, 7번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0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교사관계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

요 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교사의 사회적 지지	1,2,3,4,5	5	.82
교사와의 인간관계	6,7,8,9,10	5	.77
전 체		10	.80

#### 5) 교우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우관계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상담원(1998)이 개발한 척도를 전미라[20]가 중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단어를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결과는 총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0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우관

계 측정도구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우관계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

요 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만족감	1,2,3,4,5,15,16	7	.78
이해성	6,7,8,9,10,13,14,25	8	.75
개방성	12,17,18,19,20,21,22	7	.82
신뢰감	11,23,24	3	.85
전 체		25	.80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편의표집된 중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기초사항을 제외한 측정도구들의 순서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세 유형으로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편의표집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선정된 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설문지 작성방법을 알려주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후 하교시간에 담임교사가 직접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로 재방문하여 회수하였다.

### 4.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2.0과 LISREL 8.8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등교거부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등교거부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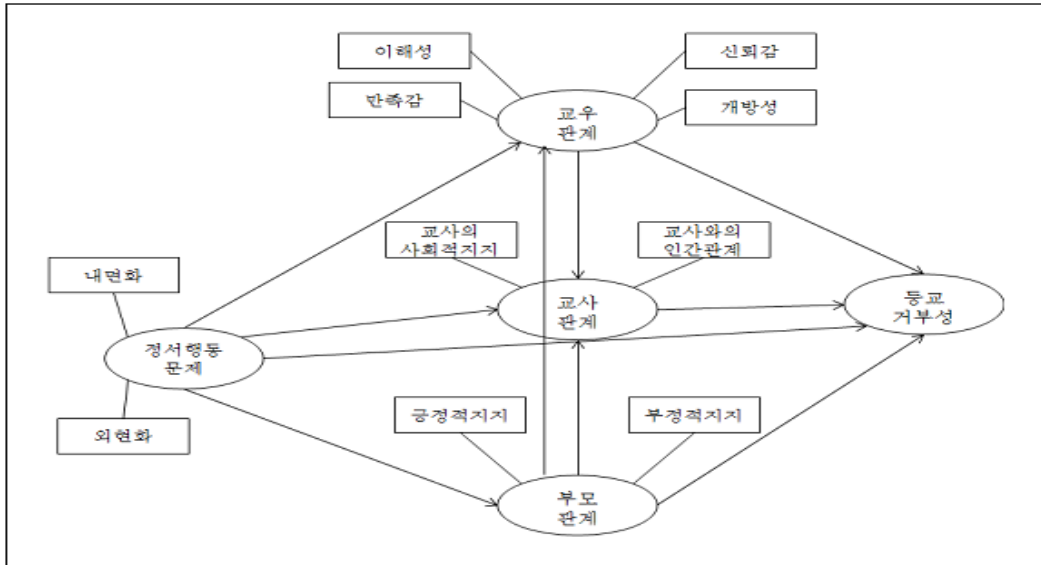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 등교거부성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 III. 연구결과

#### 1. 등교거부성과 관련변수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잠재변수는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면화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등교거부성 등 5가지이고, 각각의 잠재변수들은 1~4개의 관찰변수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계수가  $-0.77 \sim .748$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는 음영처리를 통해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6]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서·행동문제 중 외면화문제와 교사관계변인 중사회적지지 요인과 교우관계변인 중 신뢰감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 요인과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요인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면화문제)는 등교거부성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교우관계변인(만족감, 이해성, 개방성, 신뢰감)도 등교거부성에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사관계변인(사회적지

표 6.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

관찰변수	$x_1$	$x_2$	$x_3$	$x_4$	$x_5$	$x_6$	$x_7$	$x_8$	$y_1$	$y_2$	$y_3$
외면화문제( $x_1$ )	1.000										
내면화문제( $x_2$ )	.553**	1.000									
만족감( $x_3$ )	-.077**	-.160**	1.000								
이해성( $x_4$ )	-.163**	-.257**	.648**	1.000							
개방성( $x_5$ )	-.077**	-.211**	.748**	.660**	1.000						
신뢰감( $x_6$ )	-.156**	-.083**	.506**	.471**	.566**	1.000					
사회적지지( $x_7$ )	<b>-.063</b>	-.135**	.369**	.426**	.342**	.263**	1.000				
인간관계( $x_8$ )	-.259**	-.270**	.311**	.340**	.269**	.219**	.373**	1.000			
긍정적지지( $y_1$ )	-.143**	-.144**	.262**	.348**	.256**	.199**	.283**	.202**	1.000		
부정적지지( $y_2$ )	-.197**	-.223**	.087**	.096**	.077**	<b>.028</b>	<b>.063</b>	.200**	.207**	1.000	
등교거부성( $y_3$ )	.348**	.427**	-.297**	-.405**	-.295**	-.169**	-.274**	-.402**	-.228**	-.206**	1.000

\* $p < 0.05$ . \*\* $p < 0.01$ .

지, 인간관계), 부모관계(긍정적지지, 부정적지지)도 등교거부성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외현화문제가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요인을 제외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모두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 2. 구조방정식모형 평가

모형의 적합도 추정치들은 이론모형이 표본자료와 얼마나 잘 합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모형 분석결과에는 다양한 적합도 추정치들이 제공된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chi^2$	df	RMR	GFI	NFI	NNFI	RMSEA
181.79( $p=.00$ )	35	.05	.95	.95	.94	.08

### (1) Chi-square( $\chi^2$ )

구조모형의 평가지수인 Chi-square( $\chi^2$ )는 이론에 의해 설정되는 영가설은 이론에 의해 설정된 모형이 시사하는 모형공분산행렬이 모집단 변수들의 관계를 반영하는 모집단공분산행렬에 들어맞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설정된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공분산행렬은 모집단에서의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행렬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가설이 맞는다면  $\chi^2$  값은 0이 된다. 또한 실험연구와 같은 다른 통계 검증은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모형과 잘 합치된다는 영가설에 초점을 두므로 영가설을 수용하는데 의미를 갖는다[21].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chi^2$  값이 크고 확률 값이 유의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큰  $\chi^2$  값이 산출된다는 것은 ①모형설정이 잘못되었거나, ②모형검증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이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위배되거나, 표본추출이 잘못되어 관찰자료가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거나, 제안모형에 대한 개념

념설정의 오류일 가능성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James et al[22], Mulaik[23], 배병렬[24]에서 재인용.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의 전체 모형평가와 관련해 검증 통계량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것은  $\chi^2$ 가 유일하며,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영가설을 검증한다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chi^2$ 분포뿐이며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25-3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chi^2$  값이 181.79( $p=.00$ )로 나왔다. 이는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러나  $\chi^2$ 는 사례수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클 경우 다른 평가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31].

### (2)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공분산행렬은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므로 그 값이 작을 때 적합한 모형이 되고, 그 값이 커질수록 모형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MR이 .05보다 작으면 양호하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기준이며 절대적 지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21]. 설정된 유의수준 .05를 적용할 때, 본 연구모형은 .05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합치도 지수를 종합한 결과, 잠재변수 5개 측정변수 10개로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매우 적합한 연구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합치도(GFI: Goodness of Fit Index)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수집된 자료에 설정된 모형이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를 평가할 때 쓰이는 지표로서, 표본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된 모집단 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는가를 나타낸다. 표본공분산행렬의 분산과 공분산이 이에 대응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원소들로 예측되어지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합치도 지수이다[21]. GFI의

범위는 0~1사이의 값을 갖지만 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GFI가 음수이면 모형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chi^2$ 값과는 달리 표본 크기나 다변량 정상성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90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적합도지수는 .95로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규준합치지수(Normed fit index: NFI)

규준합치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주어진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형인 기초모형이 갖는 합치함수의 값에서, 기초모형보다는 자료와 더 잘 합치하는 모형이 갖는 합치함수의 값을 뺀 것을, 기초모형의 합치함수의 값으로 나누어준 것으로, 자료와 더 잘 합치하도록 모형을 재설정 했을 때 재설정된 모형이 합치함수 값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의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NFI의 값이 .95 이상일 때 의미를 갖는다[21]. 본 연구에서의 NFI 값은 .95이므로 의미를 갖는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비규준합치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비규준합치지수(NNFI)는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으며, NNFI값은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32]. 본 연구의 NNFI값은 .94로 적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6)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값은 비규준합치지수(NNFI)와 같이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다. RMSEA값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10 보다 작으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33]. 이와 같은 기준에 적용시켜볼 때, 본 연구에서의 RMSEA값은 .08로 적당한 적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 7]에서 나타났듯이 관찰변수 10개와

잠재변수 5개로 설정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치도 지수를 정리하면  $\chi^2$ 지수에서 적합한 모형이라는데 약간의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그 외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조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정이 충족되고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각각의 추정치를 확인하여 변수간의 영향력 또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과 [표 9]는 측정 모수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외생변수)

외생변수	
관찰변수	정서행동문제
외현화	1.00
내면화	1.24(10.74)*

(\*)는 t-value \* $\rho$ .001.

표 9.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내생변수)

내생변수				
관찰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등교거부성
만족감	1.00	---	---	---
이해성	.79(22.59)*	---	---	---
개방성	.90(25.73)*	---	---	---
신뢰감	.28(16.83)*	---	---	---
사회적지지	---	1.00	---	---
인간관계	---	.49(10.37)*	---	---
긍정적지지	---	---	1.00	---
부정적지지	---	---	.65(5.49)*	---
등교거부성	---	---	---	1.00

(\*)는 t-value \* $\rho$ .001.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 중 한 변수를 1로 고정하였다. 관찰변수 값을 1로 고정하는 것은 잠재변수가 설명 가능한 척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1로 고정된 참조변수는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들의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과에 제시되었듯이 외생변수에서는 갈등빈도와 부모요인이 참조변수이며, 내생변수에서는 개인내적탄



력성과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가 참조변수이다. 이러한 참조변수는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1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관찰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중학생이 지각한 정서·행동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를 관찰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전체관찰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각 잠재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가 그 잠재변수를 잘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등교거부성에 관련 변수는 다양하며, 또한 그 변수들 간의 상관 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관찰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전체적으로 대표하여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며 추정된 모수 즉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모수( $\lambda$ )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은 각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가 제한적이지만 타당성이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표 8]과 [표 9]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외생변수에서는 외현화가 참조변수이며 내생변수에서는 만족감, 사회적지지, 긍정적지지, 등교거부성이 참조변수이다. 이러한 참조변수는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1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

를 설명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분석결과  $t$ -value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측정변수는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본 연구 구조모형의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로계수는 표준화추정치치를 보여 주고 있으며 실선으로 나타낸 경로는 유의한 경로이고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서행동문제→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와 정서행동문제→교사관계, 교우관계→등교거부성, 부모관계→등교거부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경로는 유의미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서행동문제→등교거부성, 교우관계→교사관계, 부모관계→교사관계, 부모관계→교우관계는 유의한 정적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서행동문제→부모관계, 교사관계→등교거부성에는 유의한 부적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의 구조모형 추정결과와 [표 10]에 제시된 구조모형의 전체, 직접, 간접경로 추정결과를 통해 두 모형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등교거부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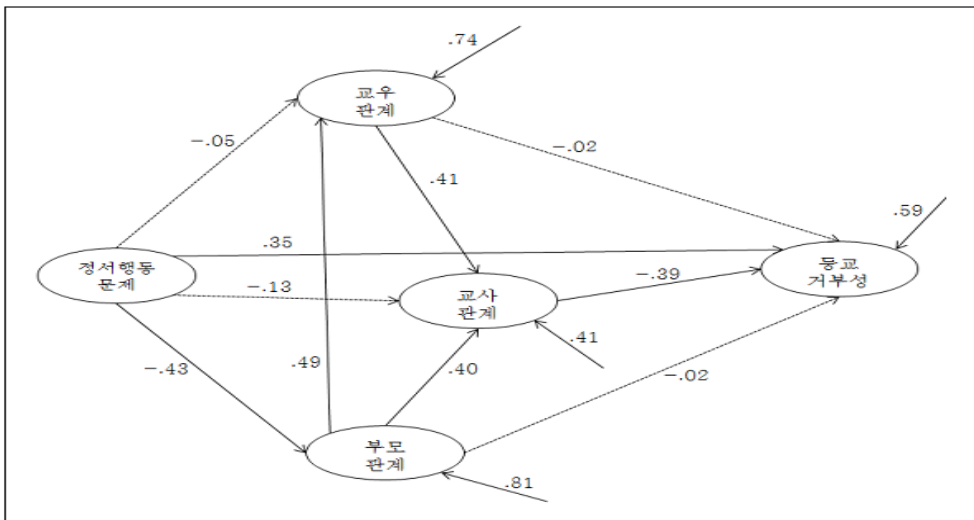


그림 2. 등교거부성 구조모형 추정결과

표 10. 전체, 직접, 간접효과

추정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경로
정서행동문제	-.26(-5.25)***	-.05(-.64)	-.21(-3.26)**	정서행동문제→교우관계
	-.41(-6.20)***	-.13(-1.71)	-.28(-4.29)***	정서행동문제→교사관계
	-.43(-5.67)***	-.43(-5.67)***	-	정서행동문제→부모관계
교우관계	.52(10.74)***	.35(6.61)***	.17(4.81)***	정서행동문제→등교거부성
	.41(4.81)***	.41(4.81)***	-	교우관계→교사관계
교사관계	-.18(-3.42)***	-.02(-.39)	-.16(-2.84)**	교우관계→등교거부성
	-.39(-3.38)***	-.39(-3.38)***	-	교사관계→등교거부성
부모관계	.49(3.74)***	.49(3.74)***	-	부모관계→교우관계
	.60(3.68)***	.40(2.66)**	.20(4.20)***	부모관계→교사관계
	-.26(-3.05)***	-.02(-.18)	-.25(-2.81)**	부모관계→등교거부성

( ) t-value; \* $p < .05$ ; \*\* $p < .01$ ; \*\*\* $p < .001$ .

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모델에 포함된 잠재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두 변수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의 합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전체효과(total effect)라 한다[31]. 그러므로 간접효과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두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 구조모형의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 즉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등교거부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전체, 직접, 간접경로 추정결과를 통해 두 모형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서·행동문제는 등교거부성 $.52(t=10.74, p<.001)$ 과 부모관계 $-.43(t=-5.67, p<.001)$ 에 매개효과 없이 각각 매우 높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관계 $-.21(t=-3.26, p<.01)$ 와 교사관계 $-.28(t=-4.29, p<.001)$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행동문제가 부모관계에는 매개효과 없이 직접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교우관계에는 부모관계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교사관계에도 부모관계와 교우관계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중학생들에게 있어 부모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교우관계는 등교거부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16(t=-2.84, p<.01)$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감, 이해성, 개방성, 신뢰감 요인으로 구성된 교우관계가 등교거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관계를 매개로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관계는 등교거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39(t=-3.38, p<.001)$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관계는 교우관계 $.49(t=3.74, p<.001)$ 와 교사관계 $.40(t=2.66, p<.01)$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교거부성 $-.25(t=-2.81, p<.01)$ 에는 [표 10]에 나타난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남, 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면화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등교거부성간의 상관관계와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면화문제), 부모관계,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등교거부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문제와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 요인, 교우관계변인 중 신뢰감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요인,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 요인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등교거부성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변인(만족감, 이해성, 개방성, 신뢰감)은 등교거부성에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관계변인(사회적지지, 인간관계), 부모관계(긍정적지지, 부정적지지)도 등교거부성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외현화문제가,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요인을 제외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모두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구조모형의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 즉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등교거부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전체, 직접, 간접경로 추정결과를 통해 두 모형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등교거부성과 부모관계에 매개효과 없이 각각 매우 높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를 비롯한 정신병리 문제가 등교거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허은정, 이성인, 류희영[34]의 연구결과와 확인화된 교육환경이 내면화, 외현화의 정서·행동문제를 발생시켜 등교거부성을 높이고, 내면화문제행동이 높고,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등교거부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이경호[3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시기에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급격한 변화와 발달로 인해 정서적 유동성과 더불어 충동적 행동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학업적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

화문제)에 영향을 주어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가 등교거부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아닌 부모관계를 매개로하여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가 부모관계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부모관계는 긍정적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관계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격, 정서, 사회성 등과 같은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교사관계와 등교거부성이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교사관계가 등교거부성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요인 측면에서 싫은 선생님과 과도한 교사의 열의가 등교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김방실[36]의 연구와 교사와의 마찰과 갈등이 등교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류남애, 유순화[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학생들에게 있어 교사는 청소년의 지적 성숙 및 정서적·사회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사는 권위적이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지양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학교 중요정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중학생의 등교거부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우관계와 부모관계가 중학생의 등교거부성에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고, 교사관계를 매개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와 부모관계가 긍정적이면 교사관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등교거부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교우 관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적인 대인관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새로운 사회적관계의 시초가 되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가족과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학교생활에 있어 교우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청소년의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 및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으로 기술한 청소년의 경우 높은 수준의 학교 외로움과 회피, 낮은 수준의 학교 선호와 참여, 일탈행동 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38]. 즉,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중학생의 중요한 스트레스의 요인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중학생들의 교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부모관계는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인간관계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긍정적 관계는 중학생의 태도나 행동 가치관 형성, 정서발달, 대인관계, 성격형성 등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긍정적 관계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반응과 수용을 경험함으로써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신뢰감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터득하게 한다. 즉,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키므로 안정적인 부모관계는 교사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등교거부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2. 결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행동문제 중 외현화문제와 교사관계변인 중사회

적지지 요인과 교우관계변인 중 신뢰감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요인과 교사관계변인 중 사회적지지요인과 부모관계변인 중 부정적지지요인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등교거부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전체, 직접, 간접경로 추정결과를 통해 두 모형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교사관계가 등교거부성에 매개효과 없이 등교거부성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관계와 교우관계는 등교거부성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학생 시기에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차원의 실천적 프로그램개발 연구 및 학교문화 개선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가 있는 중학생들을 조기 발견을 위한 적절한 평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관계가 등교거부성에 유의한 부적상관 및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학교차원에서 교직을 명료화하고 분명히 제시함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부모관계가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1] 교육부, 2013년 학업중단 현황조사, 2013.
- [2] National Research Council, Engaging schools: Fostering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Washington, D. 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 [3] 김희중, 긍정심리의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 C. A. Kearne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chool refusal assessment scale-revised: Child and parent versions," Journal of Psychopathology

- and Behavioral Assessment, Vol.28, No.3, pp.139-144, 2006.
- [5] 김수혜, "부모님들의 눈물 속에 설렘 없이 달려온 1년," 관훈저널, 제126권, pp.267-273, 2013.
- [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2012.
- [7] C. A. Kearney and K. S. Wendy, "Family environment of youngsters with school refusal behavior: A synopsis with Implications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23, No.1, pp.59-72, 1995.
- [8] 박현숙, *고등학교 일반학생과 등교거부 경험학생 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특성 비교*,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9] 박지현,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생과 재학생 비교를 통하여*,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0] 한영희,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등교거부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1] 박영배, "등교거부아의 잠재적 원인분석," *진주교대 논문집*, 제13권, pp.76-95, 1987.
- [12] T. M. Achenbach,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1991.
- [13]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노컨설팅, 2001.
- [14] W. Hudson,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Hollywood, Dorsey Press, 1982.
- [15] 김용석, 박명숙,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2권, 제1호, pp.83-106, 2000.
- [16] E. F. Dubow and D. G. Ullman,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No.1, pp.52-64, 1989.
- [17] 이영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8] 조금식,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행위적 영역의 학습습관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19] 김영미,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제21권, 제4호, pp.159-175, 2000.
- [20] 전미라, *중학교 국어교과에 기초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교우관계에 미치는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1] 이기종, *구조방정식모형 인과성, 통계분석 및 추론*,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5.
- [22] L. R. James, S. A. Mulaik, and J. M. Brett, *Causal Analysis : Assumptions, Models, and Data*, Beverly Hills, Calif. : Sage, 1982.
- [23] S. A. Mulaik, "A brief history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2, No.3, pp.267-305, 1987.
- [24] 배병렬,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경출판사, 2000.
- [25] J. L. Arbuckle, *AMOS user's guide Version 3.6*. Chicago, IL : Smallwaters Corp, 1997.
- [26] P. M. Bentler,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L. A., CA: BMDP Statistical Software, 1985.
- [27] K. A. Bollen,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 series in Probability and Mathematical Statistics, New York: Wiley, 1989.
- [28] K. G. Joreskog and D. Sorb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e command language*, Hillsdale, NJ: Erlbaum, 1993.
- [29] B. Muthen and L. Muthen,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CA : Muthen & Muthen, 1999.
- [30] 이기종,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전체모형 평가지표  $\chi^2$ 의 사용오류와 교정방안," *교육평가연구*, 제14권, 제2호, pp.219-229, 2001.

[31] 배병렬,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및 프로그래밍*, 청람출판사, 2006.

[32] 배병렬,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청람출판사, 2005.

[33] 홍세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34] 허은정, 이상언, 류희영,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의 등교거부 사례보고,”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제21권, 제4호, pp.219-231, 2010.

[35] 이경호, *고등학생 정서, 행동문제 및 관련변인들이 등교거부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6] 김방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문화기술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7] 류남애, 유순화, *전문계 고등학생의 등교거부 원인에 대한 Q방법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2호, pp.201-230, 2011.

[38] J. Deborah, C. Gustavo, and R. Marcela,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9, pp.45-59, 2000.

송 미 옥(Mi-Ok Song)

정회원



- 2000년 2월 : 광주대학교(유아교육학학사)
- 2003년 2월 :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특수교육과(교육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콘텐츠, 유아교육과 상담

저 자 소 개

이 경 호(Kyung-Ho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음악교육학학사)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특수교육과(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특수교육과(교육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초빙 교수  
<관심분야> : 교육콘텐츠, 특수교육과 상담